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에 대하여

배진성(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에 대하여

배진성(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북한의 전기 분묘 |
| II. 연구 현황 | V. 요령~길림지역의 西周~春秋 早期의 분묘 |
| III. 남한의 전기 분묘 | VI.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 |

I. 들어가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에게 부여된 주제는 ‘무덤의 기원과 전파문제’이다. 지석묘를 비롯한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기원지는 아마도 중국 동북지방, 특히 요동지역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을까 한다.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필자 역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이면서 명시적인 물증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고고학자로서의 고충과 역부족만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 남한 전기 분묘를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기에 해볼만하다는 생각으로 덤벼보았으나 발표자의 오만이 아니었나 싶다.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는 한반도 고고학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다른 어떤 유적·유물보다 연구량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지석묘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보면서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의 파악이 요청되고 있다(李相吉 2009). 발표자에게 요청된 주제 역시 지석묘 연구의 초창기부터 여러 說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사실상 定說은 없으며, 1990년대 이후의 자료 폭증에도 불구하고 분묘의 기원·계통문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 자체도 急減한 느낌이다.

이 글의 제목을 ‘~기원’이 아닌 ‘~출현’으로 한 것은 발표자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그 윤곽을 정리한(裴眞晟 2011) 남한의 전기 분묘와 함께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와 同時期이거나 약간 先行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출현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II. 연구 현황

분묘의 기원설은 주로 지식묘의 기원 연구가 많았는데, 크게 보면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숲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설, 한반도 자생설, 중국 동북지역의 석관묘를 중시하는 이른바 북방 기원설, 동남아시아 전래의 남방기원설로 나누어진다.¹⁾

남방기원설은 먼저 八幡一郎(1952)이 동남아시아의 도작문화와 함께 기반식지석묘가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도유호(1959, 1960)가 한반도 거석문화는 동남아시아 유래로써 황해도 지역에 가장 먼저 전래되었다고 하였는데, 탁자석을 가장 이른 형태라고 한 것 외에는 八幡一郎과 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방적인 석관묘·적석묘와 결합하여 변형지석묘(침촌리형)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유호는 북한에서 전형 지석묘로 분류한 탁자석은 동남아시아, 변형지석묘로 분류한 침촌리형은 자체 발생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金秉模(1981)는 지석묘와 卵生神話의 분포범위를 관련시키면서 도작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경과 관련시킨 남방기원설의 영향력은 미약하였고, 최근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는 설은 지석묘 연구 초창기의 학설로서 1960년대 이후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남방기원설과 함께 현재는 연구사 속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그리고 자생설은 북방지역 석관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석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골격이어서 크게 보면 북방기원설과도 통한다. 지석묘는 석관묘가 巨大化한 것이라는 견해(梅原末治 1946) 이래 三上次男(1961)은 사회의 위계화에 따라 지하의 석관묘가 지상화·거대화 된 것을 탁자식지석묘로 보았고, 金元龍(1974, 1986)은 시베리아 전통의 石棺墓가 한반도 서북부에서 지석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金貞姬(1988)도 지상에 덮개돌만 드러난 것이 지석묘의 초기 형식이며 북방의 석관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지석묘의 남방기원설 속에서는 석관묘는 북방적인 요소이므로 남방적 요소인 지석묘와 계통 자체가 다르다고 언급되어 있다(도유호 1959, 1960; 金秉模 1981).

어쨌든 남방기원설이든 자생설 및 북방기원설이든 늘 석관묘에 주의가 기울여져 왔고, 석관묘는 북방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 왔다. 그런데도 석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미누신스크의 카라숙 청동기문화의 석관묘가 東進하여 내몽고 및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說(李鍾宣 1976) 이래, 한반도의 석관묘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으로 인식되

1) 지석묘의 기원 및 발생에 대해서는 田村晁一(1990)과 李榮文(1993: 212)이 그때까지의 성과들을 잘 정리한 바 있다.

어 왔고(金元龍 1986), 이영문(1993)은 요령지역의 석관묘에 주목하였지만, 이후 석관묘의 계통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지역 구획묘의 기원에 대해 중국 동북지방을 주목하기도 하며(安在皓 2009), 주구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남한 내 계층화의 진전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金權中 2008).

위에서 보았듯이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기원이라고 해도 대부분 지식묘 기원을 논한 것이었다.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간의 선후관계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 시원형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또 田村晁一(1990)도 지적하였듯이 기원 문제는 가장 이른 형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한 측면도 분묘의 기원론이 안정되지 못했던 원인이 아닌가 한다. 분묘 자체의 시기 판정이 어렵기도 하고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당시로서는 특히 남한의 경우 전기 분묘 자체가 드물었던 점에서 자료적인 한계도 컸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남한 전기의 분묘를 살펴본 후 이와 시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자료를 대비하면서 분묘의 출현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Ⅲ. 남한의 전기 분묘

남한 분묘 자료의 절대 다수가 후기에 집중된 상태에서 분묘의 연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 기원·계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전기 분묘를 집성하여 검토한 발표자의 연구를 인용하면, 남한의 전기 분묘는 토광묘·석관묘·지석묘·주구묘로 구분되며²⁾, 시기는 모두 전기 후반에 속한다. 부장품의 여부 등 분묘의 특성상 시기 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근래의 자료 증가에 의해 유적의 수는 최소 30여개소에 이른다. 후기처럼 群集하지 않으며 구릉 정상부 혹은 능선부 등 조망이 좋은 곳에 입지하며, 목관의 사용 가능성 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파악되어 왔던 특징들이다. 여기서 나아가 적색마연장경호를 통해 전기 후반에서도 토광묘와 석관묘의 출현 시점이 지식묘나 주구묘보다 빠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또 남한에서의 분포를 볼 때(도면 2) 종류별 지역적 편중 현상 등이 보이지 않고 부장습속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확산된 되었다기보다는 남한 전역에서 거의 동시에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였다(裴眞晟 2011).

2) 다만, 시기 비정이 곤란한 탁자식지석묘는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앞 장의 연구현황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기원 관련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 지식묘의 기원 문제였는데, 남한 전기 분묘의 경우 지식묘보다 토광묘 및 석관묘가 수량도 많고 출현 시점도 빠르다는 점에서 출현 및 계통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남한 전기 분묘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면, 분묘의 출현 및 기원의 연구 역시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IV. 북한의 전기 분묘

* **대상 유적:** 북창 대평리 석관묘(석광준 1973, 정찬영 1974), 평촌 10호(석광준 1974), 침촌리 긴동(황기덕 1963), 남경 1호묘(김용간·석광준 1984), 봉산 어수구 석관묘(리영열 1959), 선암리(정용길 1983), 대아리(리규태 1983)

* **종류와 구조(도면 3~6):** 크게 석관묘와 이른바 침촌리형 지식묘로 구분된다. 먼저 석관묘는 네 벽 모두 각 한 매의 판석을 이용한 單板石式이 많다. 특히 대아리 석관묘는 개석, 네 벽석, 바닥석 모두 각 한 매의 판석이다. 바닥은 판석 한 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한 벌 깔거나 반대로 자갈을 깔고 판석을 깔 것은 남한의 전기 분묘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석광준(1979)의 침촌리형 제1유형은 묘역시설이 가장 큰 특징이며 매장주체부는 위의 석관묘 구조와 유사한데, 분명치는 않으나 지상식으로 파악되었다. 도면이나 보고문의 기술만으로는 3~6호가 한 묘역 안에 동시에 축조된 것인지, 연접인지, 개별 구획이 인정되는지 등 자세하지 않은데, 크게 보면 남한에서 구획묘라고 부르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

* **입지와 배치(도면 4):** 남경유적의 경우 제1지점에서는 1호묘 한 기만 확인되어 단독 분포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수습조사가 많아 배치의 파악이 곤란하다. 북창 대평리 석관묘는 배치도에는 있지만 조사되지 않은 분묘와 조사되었더라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것은 시기판정이 어려운데, 보고문의 출토유물을 통해서도 세 기 정도가 이른 시기에 해당하므로 群集할 가능성이 있다(도면 5). 침촌리 긴동지식묘도 군집한다. 따라서 배치는 단독, 군집 양자 모두 확인된다. 입지는 <표 2>와 같다.

* **출토유물:** 유혈구이단병식석검, 유혈구유경식석검, 무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 곡옥, 관옥, 요령식동검, 동촉, 미송리형토기편

북한 지식묘의 변천에 대해서는 침촌리형에서 오덕리형으로의 순서를 주장한 석광준(1979)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有光教一(1969)과 甲元眞之(1980) 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으며, 기존

의 남방식·북방식의 구분과는 다른 분류로서 다양한 지식묘 파악에 유리하다는 평가 등(田村 晃一 1990, 275)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석광준은 지식묘 가운데 가장 이른 침촌리 제1유형의 기원은 석관묘에 있다고 하였다.³⁾ 이에 해당하는 긴동지석묘 출토품은 혈구가 없는 유경식석검과 일단경식석촉이어서 前期 여부를 자신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유혈구이단병식석검과 무경식·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된 선암리 및 대아리 석관묘는 남한의 전기 후반에 병행할 수 있다. 만약 긴동지석묘가 전기라 하더라도 출현 시점은 선암리나 대아리 석관묘보다는 늦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前期 內에서 석관묘와 지식묘의 출현 시점 차이는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형의 탁자식지석묘는 포함할 수 없었는데, 석광준의 변천안(표 3)에 따르면 탁자식(전형, 오덕리형)은 전기 분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V. 요령~길림지역 西周~春秋 早期의 분묘

<요서지역의 석곽묘>

* 小黑石溝 8501호묘, 南山根 101호묘

* 石槨 內 木棺의 가능성, 槨에 어울리는 규격⁴⁾, 다종 다량의 부장품 등에서 요령식동검 외에는 한반도의 전기 분묘와 직접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움

<遼東半島의 積石墓>

* 砬頭 積石墓: 商末~周初, 于家村上層期, 地上式, 평면 형태 다양, 壺·臺附壺·把手附鉢·石珠·陶珠 등 출토, 單室이지만 多人葬이어서 한반도 전기 분묘와는 매장습속의 차이가 있음

<요동지역의 지식묘 -石槨, 大石蓋墓->

* 伙家窩堡 1·3호 석봉, 雙房 2호 석봉 및 6호 석개석관묘, 東山 大石蓋墓 등: 부장품에 의한 시기 파악 가능 - 이중구연(사선문)토기, 미송리형토기 등(도면 8~10)

3) 침촌리 제1유형의 매장주체부가 석관묘와 유사하며, 이와 더불어 북창 대평리 석관묘도 당시에는 지상에 축조되었으며 원래는 그것을 감싼 봉분이 있었다고 추정된 후, 봉분의 유실 때문에 뚜껑들을 크고 무겁게 만들 필요에서 침촌리형 지식묘와 같은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 개석 위에 상석이 확인된 연안 장곡리 분묘는 석관묘에서 지식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다. 즉 그의 견해는 지식묘의 한반도 자생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북지역 지식묘는 석관묘로부터 독자적인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4) 長 3.8m 幅 1.8~2.2, 深 2.4m(南山根 101호묘), 잔존 長 3.1, 幅 2.3, 深 2.1m(小黑石溝 8501호)

* 요동반도 석봉의 연구

- 許玉林(1985, 1994): 大石棚→中石棚→小石棚, 피장자의 신분 반영, 적석총→석봉→대석개묘
- 陳大爲(1991): 早期石棚(折木城)→變形石棚(石棚峪)→變形小石棚(白店子)→大石墓→崗上墓

⇒ 중국의 연구자들은 대형 석봉을 이른 시기로 파악하고, 한반도의 지식묘는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석광준(1979), 甲元眞之(1982), 田村晃一(1996) 등은 요동의 석봉과 한반도의 탁자식지석묘를 같은 계통으로 보면서 소규모이고 다소 조합한 것을 이른 시기, 크고 웅장하고 정교한 것을 늦은 시기로 편년하였다.

* 소석봉: 群集, 쌍타자Ⅲ~상마석상층기, 火葬人骨(화동광, 쌍방2호, 화가와보1·5호 등), 多人葬의 석봉이 석관묘 등의 영향에 의해 單人葬의 대석개묘로 변천했다고 보기도 함(宮本一夫 1997)

* 탁자식의 기원: 침촌리형(석광준 1979), 요동반도의 적석묘(中村大介 2008)

* 대석개묘: 석봉 기원(許玉林 등), 요동반도의 적석묘(王嗣洲 1998) 기원 등. 쌍방의 경우 대석개묘로 볼 수 있는 6호묘 출토 토기보다 2호 석봉의 토기가 이르지만, 鳳城 東山 大石蓋墓는 그보다 앞선 마성자문화에 속함. 동산 대석개묘 등에서도 火葬人骨은 일반적이다.

<요령~길림지역의 석관묘>

중원과 달리 중국 동북지역은 석관묘를 축조하는 전통이 강하며, 지식묘나 적석묘보다 분포 범위도 훨씬 넓다. 요서의 하가점상층문화에서 길림 서단산문화의 이른 단계 등

* 遼寧 大伙房水庫, 遼寧 西豐縣 消防隊院內, 遼陽 二道河子, 吉林 西團山 등 - 요령식동검, 미송리형토기, 파수부장경호 등(도면 12·13)

* 구조: 단판석식, 복판석식, 판석을 가로로 잇댄 것과 세로로 세워서 축조한 것, 할석 축조 혹은 할석과 판석 혼용 등 다양

* 남한과 같은 단독 축조는 드물다.

* 한편, 마성자문화의 동굴묘에는 석관묘도 있지만 토광묘도 많다.⁵⁾ 쌍타자Ⅲ기에 병행하며 火葬, 仰身葬, 二次葬의 세 가지 葬法이 확인된다(遼寧省博物館 外 1985).

5) 이종수(2009)는 요북지역 및 요동반도를 포함한 요남지역은 물론 길림지역 서단산문화의 석관묘도 마성자문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VI.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

* 앞의 연구사에서 보면 기원 문제는 대부분 지석묘에 집중되고, 그것도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석묘로서 늦은 시기의 것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남한의 전기 분묘는 석관묘와 토광묘가 많아 기존의 기원 관련 연구와 남한의 상황은 맞지 않는다. 논의의 역사가 비교적 긴 지석묘의 기원도 미궁인데 여기에 토광묘나 석관묘의 출현이 더 앞선다면 기원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해질지도 모르겠다.

* 요령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지역에 석관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석묘의 기원을 석관묘에서 찾는 견해가 많았다. 남한에서도 석관묘의 출현 시점이 지석묘보다 빠르기 때문에 분묘의 출현은 석관묘의 출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를 보더라도 한반도 석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계’라는 표현으로 언급될 뿐, 대상·경로·형식비교 등 구체적인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아직도 탁자식·기반식·개석식의 선후관계가 혼란스럽듯이, 각 종류별 분묘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해서 분묘 자체의 형식 비교로는 그 결과 또한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따라서 분묘의 구조와 더불어 출토 유물 및 관련 습속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 무문토기사회에서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전통의 출현>

무덤에 돌을 사용하는 문화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먼 지역에서 기원을 찾기 보다는 무문토기사회와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형식의 비교를 통한 분묘의 기원·계통 파악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전기후반 남한 전역에 확산하는 분묘 축조의 개시에는 어떤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때 주목되는 곳은 북한~중국 동북지역이다. 요동지역에서도 요동반도와 요동내륙부의 전개양상에 차이가 있듯이(宮本一夫 1997)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별 전개 양상의 차이는 고려되어야겠지만, 중국 동북지역~북한~남한을 흐르는 어떤 공통의 요소나 관념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석묘에 대한 앞의 여러 연구들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무문토기의 계통론에서도 요동~한반도 서북지역이 주목되고 있다(裴眞晟 2010b).

앞에서 본 중국 동북지역의 분묘는 적석묘, 지석묘, 석관묘, 석곽묘, 토광묘 등으로 다양한데 비해, 이와 대비되는 시기의 한반도는 석관묘, 토광묘, 지석묘, 주구묘이며 그 중에서도 석관묘와 토광묘가 먼저 나타난다. 그것도 전기 후반이라는 특정 시기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점에서 볼 때 요령지역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석관묘의 대비 >

* 중국 동북지역, 북한, 남한 모두 지석묘보다 석관묘가 먼저 출현한다. 토광묘도 해당될 것 이지만 현재로서 북한지역의 전기 토광묘는 알 수 없다.

* 구조: 앞에서 본 요령~길림지역의 석관묘는 벽면을 축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비해, 북한 지역의 석관묘는 모두 단판석식이다. 반면 남한 전기의 석관묘에는 단판석식이 한 기도 없는 점은 북한과는 다른 양상이다. 바닥의 처리 방식도 북한지역에는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한 벌 깔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동북아시아 석관묘 가운데 북한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양상이 아닌가 한다. 북한과 남한 모두 요령지역 석관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구조에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원인은 서로 다른 형태의 석관묘를 수용하였거나 아니면 특정의 석관묘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석관묘라는 분묘 축조 자체를 수용하여 지역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後者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 배치: 남한의 경우 전기에는 주로 단독 및 두 기 병렬 배치되다가 후기에 가서 군집을 이루 는데 반해, 중국 동북지역은 적석묘, 석관묘, 석봉⁶⁾, 대석개묘 등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 기가 群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경1호묘는 단독 축조의 가능성이 있고 대평리는 群을 이루며 대아리와 선암리는 실상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유적 내 분묘의 배치 상황도 세 지역이 동일하 지는 않다.

< 부장습속의 구분 >

* 위와 같이 분묘의 형식이나 구조만으로 기원·계통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유적 내 배치 상황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 부장습속: 중국 동북지역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 요령식동검의 부장은 공통되지만, 부장 품의 組合相은 요서, 요동, 길림, 한반도가 다르다. 요서의 남산근 101호묘 및 소흑석구 8501 호묘와 요동지역 분묘 부장품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서단산 석관묘의 주요 부장품인 파수 부장경호와 반월형석도 등의 조합상 역시 요동지역과는 구별된다. 요동지역의 석관묘·석봉· 대석개묘 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토기, 방추차, 각종 석부, 동검, 동모, 동부 등이 조합되지 만, 한반도는 이처럼 다양하지 않다.⁷⁾

그러한 반면, 남한 전기 분묘의 부장품은 북한지역과도 다르지 않아 한반도 전체에 공통성을 띤다. 토기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석검과 석촉을 필두로 하여 토기·옥제품 등

6) 이른 시기의 소석봉은 群을 이루며, 이후에 축조되는 대석봉은 단독 축조를 특징으로 한다.
7) 또 지석묘가 분포하는 범위는 鼎이나 鬲이 없는 토기양식의 분포 범위와 일치하는(宮本一夫 1997) 등 요동 지역 내에서도 구분되며, 쌍방 및 이도하자보다 이른 타두적석묘나 묘후산유적의 부장유물 역시 이들과는 구분된다.

을 부장하는 습속은 청천강 이남지역에 공통된다.⁸⁾

*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시기는 늦지만 압록강 상류역의 강계 풍릉동 석관묘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裴眞晟 2010a), 압록강유역은 부장유물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특징을 보이지만 석관묘의 구조는 청천강 이남의 특징인 단판석식이다. 전형의 미송리형토기도 청천강유역이 南限界이다. 압록강유역을 양 지역의 특징이 공존하는 접이지대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그 이남지역부터 석검과 석촉을 위주로 하여 한반도화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14). 부장습속을 공유한다는 것은 분묘에 대한 관념적인 측면의 공통성을 시사한다. 비록 분묘의 구조나 배치 상황에서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에 분묘 축조가 시작될 당시에 청천강 이남지역은 이에 대한 공통의 관념이 있지 않았을까.⁹⁾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한반도 청동기시대 혹은 무문토기시대 분묘의 출현은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특정 형식의 분묘가 전파되어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으로부터 분묘를 축조하는 습속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韓半島化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시기적으로는 전기 후반, 지역적으로는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설정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보았다.¹⁰⁾

분묘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형식 비교를 통해 각각의 기원과 전래 루트를 밝히고 그 원인과 결과까지 논할 수 있어야 원래의 목적인 기원·계통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고들수록 필자의 한계만 절감할 뿐이었다. 여러 연구자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축적되기를 바란다.

8) 한편, 남부지역의 김천 신촌리 1·2호묘에서는 蛤刃石斧가 공반하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 전기 분묘의 매장 주체부 내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는 반면, 요동지역의 大伙房水庫 석관묘, 伙家窩堡 1·3호 석봉, 東山大石蓋墓 등 여러 유적에서 蛤刃石斧가 부장되고 있으며, 편평편인석부까지 포함하면 요동~길림지역 일대에 석부의 부장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전기 후반에서도 이른 시점에 해당하는 토광묘에서 함인석부가 출토된다는 것은 요동지역의 영향이 반영된 것일까. 類例의 증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9) 동북아시아 지식묘의 분포에서 압록강유역과 청천강유역 사이 지역 空白(도면 7)도 청천강유역을 하나의 경계로 보는데 관련될지도 모르겠다.

10) 이 밖에 남한 전기 분묘 축조 개시의 배경이나 화장인골을 통한 남한과 요동지역과의 관련성 등은 前考(裴眞晟 2011)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 참고문헌 】

- 金權中, 2008, 「青銅器時代 周溝墓의 發生과 變遷」, 『韓國青銅器學報』 第三號, 韓國青銅器學會.
- 金秉模, 1981, 「韓國巨石文化 源流에 관한 研究(1)」, 『韓國考古學報』 10·11, 韓國考古學會.
- 김원룡, 1974, 「한국의 고분」 교양 국사 총서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_____,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서울: 一志社.
- 김정희, 1988,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研究」, 『崇實史學』 第5輯, 崇實大學校 史學會.
- 裴眞晷, 2010a, 「江界 豊龍洞 石棺墓에 대한 斷想」,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_____, 2010b, 「무문토기의 계통과 전개」, 『考古學誌』 第16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 80, 韓國考古學會.
- 安在皓, 2009, 「松菊里文化成立期の嶺南社會と彌生文化」, 『彌生文化誕生』 彌生時代の考古學2, 同成社.
- 李相吉, 2009, 「소위 '區劃墓' 에 대한 몇 가지 견해」, 『巨濟 大錦里 遺蹟 -考察編-』, 慶南考古學研究所.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鍾宣, 1976, 「韓國 石棺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1, 韓國考古學會.
- 이종수, 2009, 「松花江유역 초기철기문화와 夫餘의 문화기원」, 서울: 주류성.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 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도유호, 1959, 「조선 거석 문화 연구」, 『문화유산』 2.
- _____, 1960, 「조선 원시 고고학」, 과학원 출판사.
- 리규태, 1983, 「배천군 대아리 돌상자무덤」, 『고고학자료집』 6,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리영열, 1959, 「봉산군 여수구 석상분(石箱墳)」, 『문화유산』 1, 과학원출판사.
- 석광준, 1973, 「북창유적의 돌상자무덤과 고인돌에 대하여」,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1974, 「오덕리고인돌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제4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1979, 「우리 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7,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정용길, 1983, 「신평군 선암리 돌상자무덤」, 『고고학자료집』 제6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제4집, 사회과학출판사.
- 황기덕, 1963, 「황해 북도 황주군 심촌리 긴동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과학원출판사.
- 王嗣洲, 1998, 「論中國東北地區大石蓋墓」, 『考古』 2.
- 遼寧省博物館·本溪市博物館·本溪縣文化館, 1985, 「遼寧本溪縣廟後山洞穴墓地發掘簡報」, 『考古』 6.

- 陳大爲, 1991, 「試論遼寧“石棚”的性質及演變」, 『遼海文物學刊』 1.
- 許玉林, 1985, 「遼東半島石棚之研究」, 『北方文物』 3.
- _____,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 甲元眞之, 1980, 「朝鮮支石墓の再検討」,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
- _____, 1982, 「中國東北部の支石墓」, 『森貞次郎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攷』.
- 宮本一夫, 1997, 「中國東北地方の支石墓」,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総合的研究』, 平成6年~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2))研究成果報告書.
- 梅原末治, 1946, 「朝鮮古代の墓制」.
-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 有光教一, 1969, 「朝鮮支石墓の系譜に關する一考察」, 『古代學』 第16卷2~4号, 古代學協會.
- 田村晃一, 1990, 「東北アジアの支石墓」, 『アジアの巨石文化』, 六興出版.
- _____, 1996, 「遼東石棚考」, 『東北アジアの考古學』 [槿域], 깊은샘.
- 八幡一郎, 1952, 「北九州ドルメン見聞記」, 『考古學雜誌』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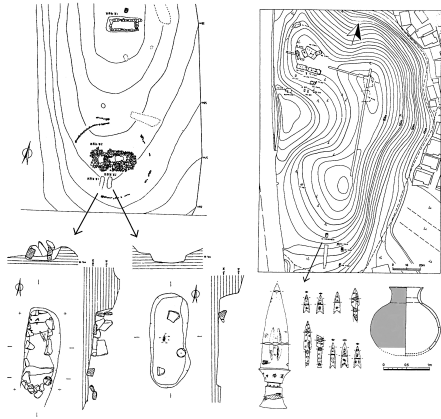
<표 1> 남한의 전기 분묘(裴眞晟 2011)

종류	유적명	벽면	바닥	배치	입지	출토유물(대량주제부)
토광묘	新陽 松田里 1호	석개 토광	점토(?)	단독	楸椀面	유경식석검1, 무경식석촉2, 이단경식석촉3, 珠玉(원하석제)1, 직색아연호1, 구슬자목문장경호1
	梧州 耳谷里 2호	토광	점토	단독	충적지	채문토기2, 무경식석촉2, 이단경식석촉1
	馬山 柳谷里 10호	석개 토광	생토	단독(?)	충적지	자목토기2
	海環 三政1里 1호	토광	생토	단독	구릉	직색아연호2, 토제방우차1
	蔚山 鼎大里 1호	토광	생토	단독	구릉	직색아연호1, 이단경식석검1, 무경식석촉1
	海平 月谷里 1호	토광 (목관)	생토	小群 (27)	구릉	이단경식석검1, 무경식석촉6, 직색아연호1
	海平 月谷里 2호	토광	생토	小群 (27)	구릉	무경식석촉7, 유경식석촉3, 직색아연호1
	金泉 新村里 1호	토광	생토	小群 (27)	구릉	합인석부1, 석갈봉우린1
	金泉 新村里 2호	토광	생토	小群 (27)	구릉	유경식석검1, 합인석부1
	金泉 玉峯里 1호	토광	생토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석갈편1
	華城 柳化里 1호	토광	생토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2
	固城 瑞9里 2호	판석	판석1매	小群 (27)	구릉	채문토기2
	玉屏8地區 15호	판석	판석	?	충적지	채문토기2, 무경식석촉1, 이단경식석촉1
	慶州 月山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이단경식석검1, 무경식석촉17, 관옥4
석관묘	慶州 汶山里 田나-2호	합석?	생토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7, 직색아연호1
	慶州 瑞城洞 1호	판석	판석	단독	충적지	무경식석촉3, 이단경식석촉3
	海環 馬山里 1호	합석, 판석	점토	단독	小丘塚	직검1(銅身片), 무경식석촉1
	蔚山 李門洞-蓮岩洞 1호	합석	생토(?)	?	?	이단경식석검1, 무경식석촉2, 유경식석촉1
	석관1	-	-	小群 (27)	구릉농성	무경식석촉17
	德館 洛山里 1호	-	-	-	-	직색아연토기편1, 무경식석촉4, 유경식석촉2
	석관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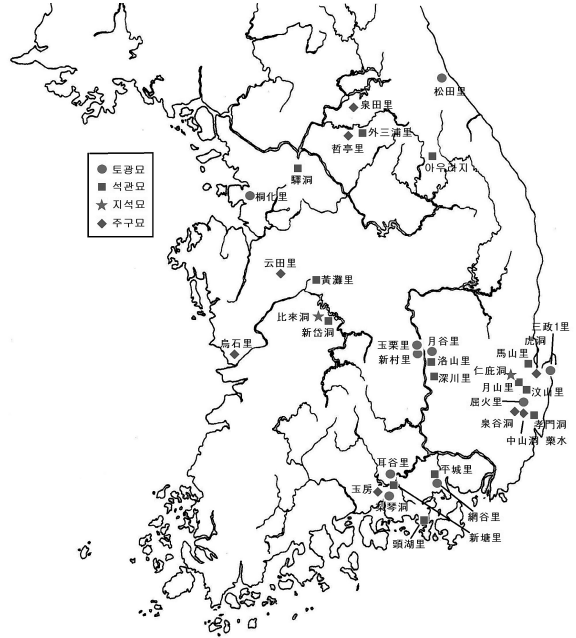
종류	유적명	벽면	바닥	배치	입지	출토유물(대량주제부)
토광묘	大邱 龍谷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충적지	직색아연토기편1, 무경식석촉1매, 직색아연토기편1, 관옥1편1호
	海環 柳谷里 10호	합석	자갈층	단독(?)	구릉	이단경식석검1, 무경식석촉1, 관옥4호1호
	金泉 玉峯里 1호	합석	판석	구릉	무경식	무경식
	海平 月谷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요령식동검1, 이단경식석촉1, 직색아연토기
	海平 月谷里 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합인석부1
	金泉 新村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직색아연토기, 무경식석촉1, 직색아연토기
	金泉 新村里 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직색아연토기, 무경식석촉1, 직색아연토기
	金泉 玉峯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직색아연토기, 무경식석촉1, 직색아연토기
	華城 柳化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2
	固城 瑞9里 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玉屏8地區 15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慶州 月山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慶州 汶山里 田나-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慶州 瑞城洞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석관묘	海環 馬山里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蔚山 李門洞-蓮岩洞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3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4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5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6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7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8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9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10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11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石谷 12호	합석	판석	단독	구릉	무경식석촉1, 무경식석촉2

<표 2> 북한의 전기 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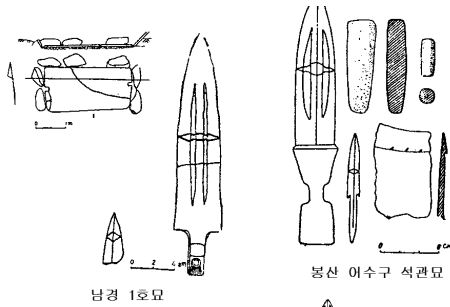
유적	벽면	개석	바닥	배치	입지	출토유물	
평양 남경 1호	합석(최하단 잔존)	?	판석, 자갈	단독	충적지	유경식석검1, 석촉, 미송리형토기편	
신천 선암리	1호	판석(?)	판석1매	판석	?	구릉	요령식동검1, 무경식석촉1, 이단경식석촉3, 관옥2, 인골
	2호	판석(?)	?	합석	?	구릉	무경식석촉 2, 이단경식석촉 2
	배천 대아리	판석	판석1매	판석1매	?	낮은 구릉	요령식동검1, 동촉1, 무경식석촉1, 이단경식석촉9, 관옥1
봉산 이수구	판석	?	?	?	구릉	이단경식석검1, 석촉3, 지석1, 관옥1	
북창 대평리	1호	판석	판석1매	자갈	군집	대동강 삼각주	무경식 · 이단경식석촉5, 옥2
	4호			판석1매			미송리형토기편, 유흥구유경식석검1, 무경식석촉3, 유경식석촉4, 곡옥2, 인골
	8호			자갈, 판석			유흥구유경식석검1, 이단경식석촉8, 인골
침촌리형	침촌리 건동 3~6호	판석9 지상식?)	上石, 판석	자갈, 판석, 양자 혼합 등	군집	구릉	유경식석검, 유경식석촉
	오덕리 평촌 10호	판석(지상식)	上石, 판석	생토	?	충적지	팽이형토기편, 석촉편, 합인석부



<도면 1> 해평월곡리, 대전신대동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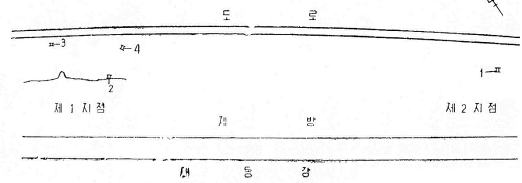


<도면 2> 남한 전기 분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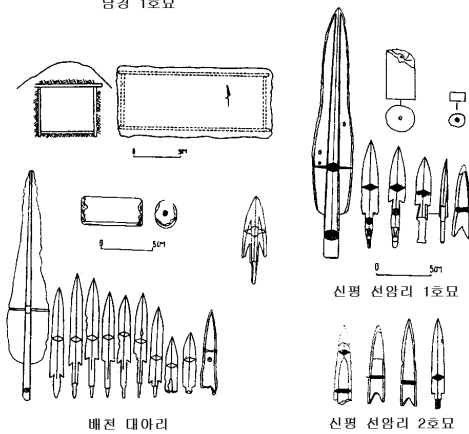


남경 1호묘

부산 이수구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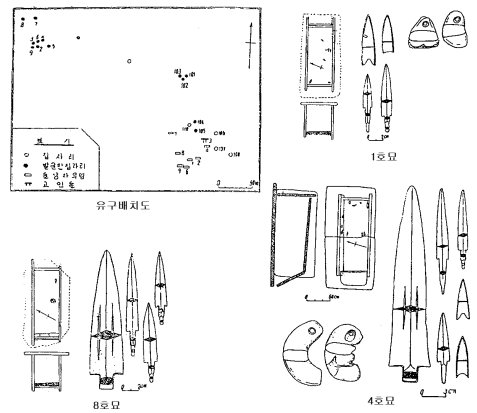
<도면 4> 남경유적 분묘 배치도



배전 대아리

신평 선암리 1호묘

신평 선암리 2호묘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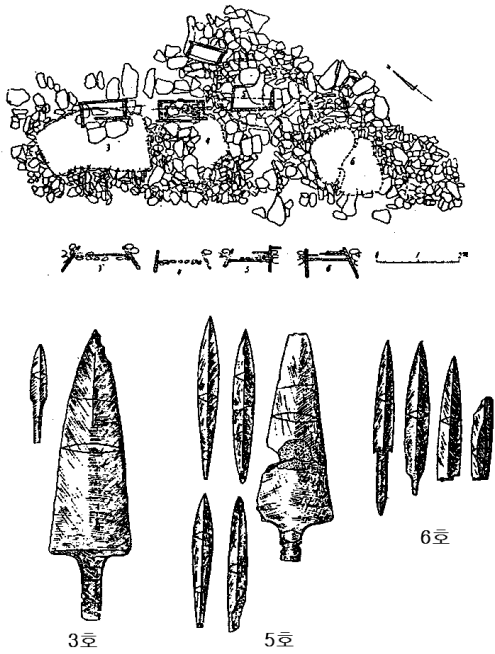
1호묘

8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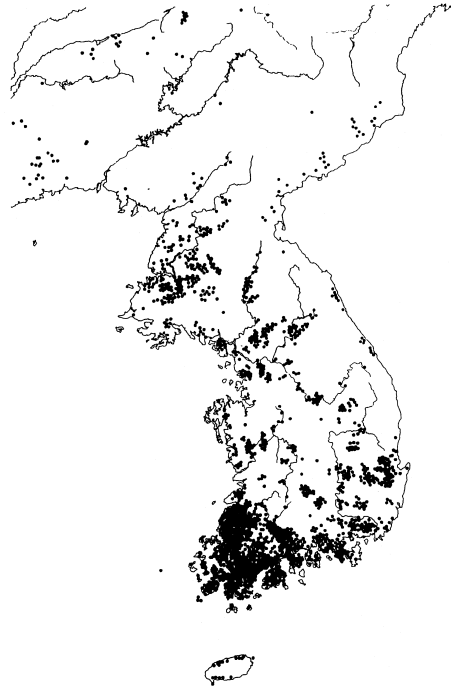
4호묘

<도면 3> 남경, 어수구, 대아리, 선암리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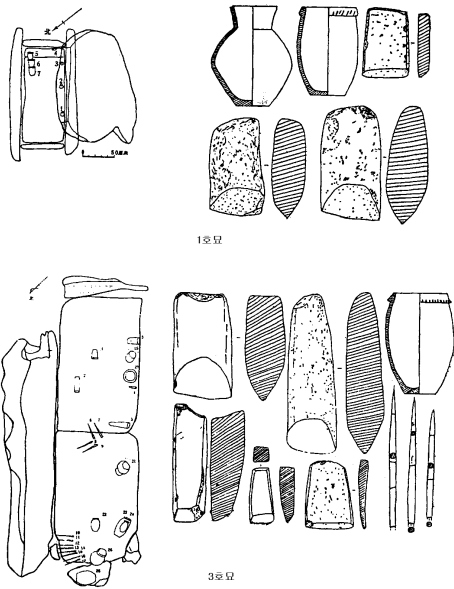
<도면 5> 북창 대평리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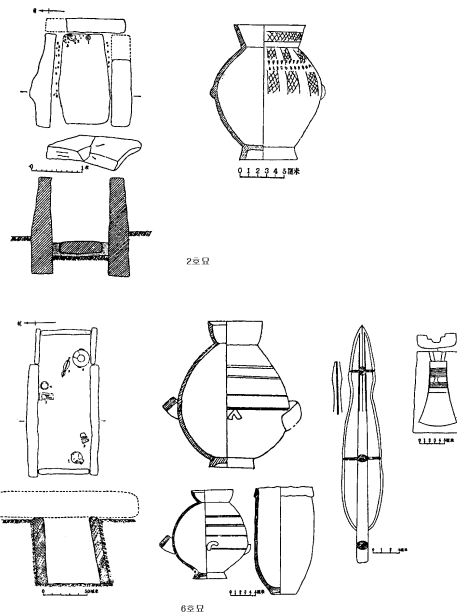
<도면 6> 긴동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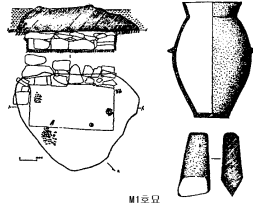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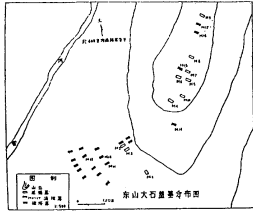
<도면 7> 동북아시아 지석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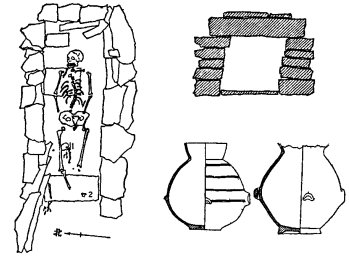
<도면 8> 伙家窩堡 石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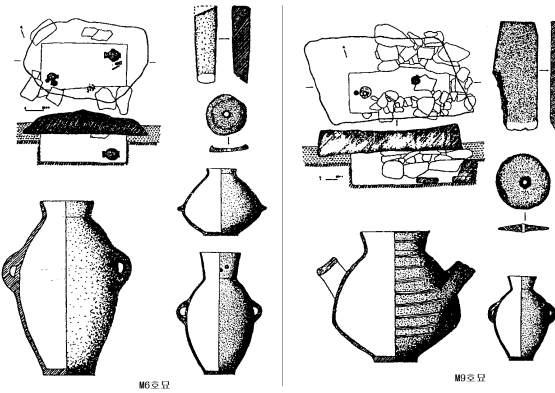
<도면 9> 雙房遺蹟 石棚, 大石蓋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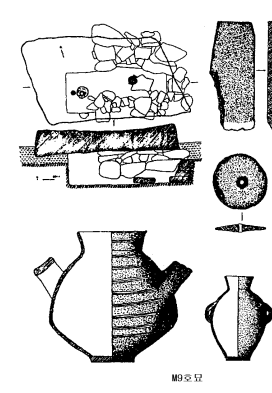
M1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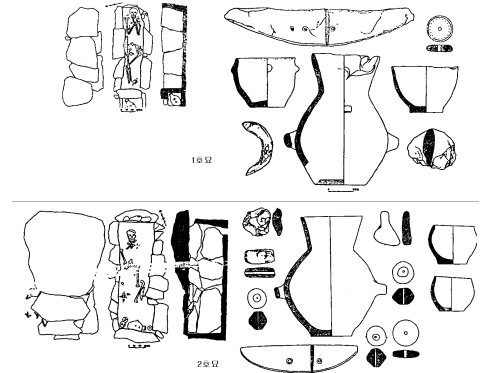
<도면 11> 遼陽 二道河子 석관묘



M6도묘



M9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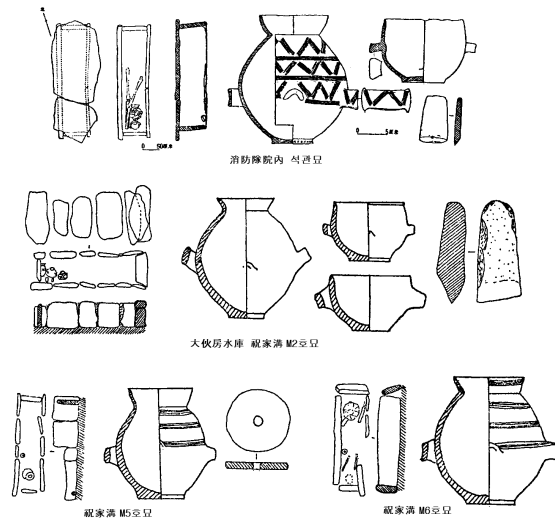


M2도묘

M2도묘

<도면 10> 鳳城 東山 大石蓋墓

<도면 12> 吉林 西團山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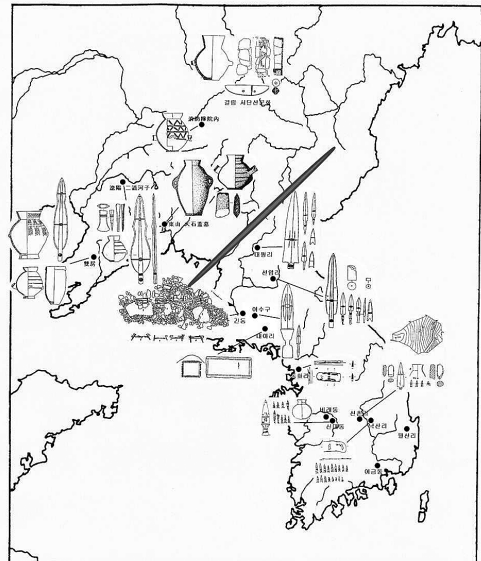


消防隊院內 석관묘

大伙房水庫 祝家溝 M2도묘

祝家溝 M5도묘

祝家溝 M6도묘



<도면 13> 西豐 消防隊院內, 撫順 大伙房水庫 석관묘

<도면 14> 경계의 설정

